

영적전쟁에 동참하신 동역자님께!

선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선교를 알기 위한 것보다는 요즘 흘러가는 세태에 대한 한탄에서 나오는 것이라 정말 씁쓸합니다. 이것이 감지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와도 좀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임에도 소명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교회당이나 거룩하게 말하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신학”이 없어서도 아니요 “선교학”이 없어서도 아니라, 선교가 “자기 상”을 쫓아가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에 관심이 빠른 세속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가르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하늘의 상”과 무관한 일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혼돈 속에서 자기 의를 찾기에 분주한 것처럼 선교도 혼돈이라는 세상 휘오리 바람에 휘날려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확실히 분리하고 자기 유익에 조금만 스킨이라도 하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세상. 그러나 선교가 이런 세상 풍조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지만 밀려오는 파도를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루의 묘목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움직입니다.

34회 교사대학을 마치고(7월 8-11일).....

늘 그랬듯이 어린이 사역은 힘든 사역입니다. 이번에도 힘든 사역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 인해 그 힘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애쓰며 세웠던 CDP 친구들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주어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숙소 준비, 강의안, 찬송 율동, 등록 그리고 모든 안내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섬겨준 TSSI 스텝과 동료 선교사들 그리고 방콕은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섬기시는 모습 속에서 선교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신 강사님들 소재혁 목사, 고상범 목사, 이화령 목사, 이정옥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료도 없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라도 더 나누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 속에 그리고 배우려고 열심을 보인 참석자들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의리를 나누어주신 서동국선교사, 한용관선교사, 그리고 정승희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5회도 사역의 기쁨을 나누는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태국 기아봉사단 모임을 마치고(7월 28-30일).....

방콕은혜국제학교에서 태국 기아봉사단으로 허입된 후 처음 가진 태국 기아봉사단 모임. 사실 선교사로서 정체성이 없다는 것처럼 슬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같은 선교단체 선교사임에도 따로 놀고 관계없이 놀다가 새로운 정책에 의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부 중심 사역이 현장의 정체성을 흐트렸지만 이제 현장 중심 사역으로

전환하는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속력 없이 자기 맘대로 사역하다 선교사의 정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다시 출발하는 선교 NGO인 기아대책기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생존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사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모인 모임이었지만 참가자들의 눈동자에서 새로운 각오를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외롭게 투쟁적인 삶의 내용들이 소개될 때마다 모두가 위로받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귀한 책자로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이전 습관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태국기아봉사단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땅을 일구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태국기아대책기구 싹 판회장을 초청하여 사역을 들었고 서로 협력의 길을 찾아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Bangkok Grace House 수련회(8월 6-8일)

방콕은혜국제학교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의 수련회는 부모와 고향을 떠나 살아가기 위한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에서 2명의 선교사 자녀가 입주를 했습니다. 왜 부모를 떠나 이곳에 입주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삶의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감사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기숙사는 6명의 선교사 자녀, 4명의 한국 유학생 그리고 4명의 태국 학생들이 김순화 사감선생님과 제씨, 에린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멋지게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방콕은혜교회 어머니 날 초청 예배

8월 10일 태국 어머니 날 주일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과 CDP 어린이들의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함께하며 조그만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종전에 토요일에 하던 것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태국교회, 한인교회, CDP과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저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가정에 크신 복을 주시리라 확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음료수로 협찬해주신 Tom & Toms(김지용 법인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콕은혜국제학교 2014/2015년 학기 시작

8월 13일 시작된 이번 학기에는 참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사랑됨과 선생님들의 자질을 알 수 있었고, 그 어느 때 보다도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교사 예배시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감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도 이전 보다 더욱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중국어 교사 3명을 총원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매일 1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음악 교사도 미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선명희 합창단원 출신이며, 서울대학과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LA 어바인 뽀엘교회 음악감독으로 은퇴하신 김종만 박사님이신데 앞으로 방콕은혜학교의 음악 학교 분야 발전이 기대됩니다. 성악, 합창, 피아노, 관현악 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과 학교부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후원자를 붙여주시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주세요.](#)

삼성생명 “Thai School for Children to Learn 2014” 컴퓨터 전달식

올해는 방콕, 라용, 차청싸우, 록부리, 싸물쁘라칸, 촌부리 등 6개도에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 선정을 위해 태국 교육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지난 7월 17일 싸물쁘라칸도의 왓남댕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8월 14일 록부리도의 2개 학교, 8월 22일 촌부리 램차방에 2개 학교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나가자”라는 한국어 한마디를 소개하고 제창하게 하여 참가한 지역 유지들,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라, 가정, 자신, 그리고 세계를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뜻을 가지라고 외쳤습니다.



주안에서 늘 강건하소서.....

2014년 8월 27일 방콕은혜동산에서 정석천, 신병연, 정주리, 정태은 드립니다.

연락처 : 전화: 66-81-823-0365(직통),

인터넷 폰 : 070-8227-0365(사무실), 070-5017-0366(집)

선교비 후원을 위해서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태은을 위한 장학금 : 예금주 : 정석천, 국민은행 088-21-0288-380

일반 장학금 후원 계좌 : 예금주 : 정석천, 국민은행, 848602-04-016753

선교비 후원 계좌 : 예금주: 정석천, 국민은행, 848601-04-007183